

# 북방 영토 문제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연구

## — 서사학적 고찰 —

다카하시 마코토 (홋카이도대학)

### 1. 시작하며-배경

한일 차세대 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영광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영토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문제 제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북쪽 영토 문제라는 영토 문제가 존재한다. 북쪽 영토 문제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에 소련군이 일본의 영토인 북쪽 네 개 섬(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쿠나시리 및 에토로후 섬)을 침공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가 법적 근거 없이 점거하고 있는 일’<sup>1)</sup>을 말한다.

이 북쪽 영토 문제와 관련해, 전쟁 전에 북쪽 영토에 거주했던 원도민들의 평균 연령은 80세를 넘어 고령화가 한층 더 진행되고 있으며, 그분들의 기억을 계승하고자 일본 국내에서 반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그 활동의 대부분은 행정이나 관계 단체 등이 주최하고,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계승 활동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하에서의 일련의 활동은 국가의 의향이 짙게 반영되어, 통상적인 ‘전쟁 체험’과는 다른 역사 체험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 2. 선행 연구

본 연구의 선행 연구로는 나카무라(2000)<sup>2)</sup>, 쿠로이와(2007)<sup>3)</sup>가 있다. 나카무라는 원도민 및 원도민 2세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를 통해, 쌍방의 인식 차이를 지적하고 북쪽 영토 반환 요구 운동이 형식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했다. 쿠로이와는 반환 요구 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돋움해나가는 과정에서 원도민들의 개인적인 마음이 버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쿠로이와가 지적한 것은 정치적인 관계나 운동으로서의 측면으로 인해 원도민들의 마음이 반환 요구 운동에 흡수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편 이들 연구에서는 원도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형태라는 관점에 선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원도민이 이야기하는 체험담을 서사학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원도민이 화자가 되어 들려주는 이야기의 구조를 분석해 원도민의 마음이 서사화 됨으로 인해 국가의 이야기로 흡수되는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드러냄과 동시에, 흡수되지 않은 원도민의 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 3.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대상 자료는 원도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공사)북쪽 영토 북귀 기성 동맹이 주최하는 ‘원도민의 북쪽 영토를 이야기하는 모임’(이하, 이야기 모임)의 기록을 모아놓은 자료집이다.

이 원도민이 화자가 되어 그들의 체험을 들려주는 모임은, 1990년 4월 고르바초프의 방일을 앞두고 매스컴이 북쪽 영토의 현 상황을 취재해 소련인들의 생활상이 보도되자, 현도민들의 자식이나 손자 세대가 태어났다면 섬을 돌려달라고 해도 무리일지도 모른다는 일본 내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 여론을 북쪽 영토 반환 운동의 분단을 노리는 소련류의 프

로과간다(선전)로 보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으로 시작된 것이다<sup>4)</sup>.

그런 상황에서 ‘북쪽 영토에 살던 원도민과 그 2세를 통해 전쟁 전의 섬의 모습과 소련군의 침공, 강제 철수, 북쪽 수역의 어업 상황 및 반환 운동 활동과 앞으로의 결의 등을 어필하고, 북쪽 영토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증언’<sup>5)</sup>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기록물도 ‘고비를 맞은 북쪽 영토 반환 운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sup>6)</sup>며 편찬된 것이다.

또한 이야기회는 공익사단법인 북쪽 영토 복귀 기성 동맹이라는 단체가 주최했지만, 외무성이 주최한 시기도 있기에 외무성이 공인한 전쟁 체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홋카이도를 포함해 오키나와, 나가사키, 히로시마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주로 각 지역의 부인 단체가 공동 주최하여 개최되고 있다. 즉, 이야기회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화자와 청중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체험을 타인과 나누는 것이며, 구승 문학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이야기가 일정한 구조를 가진 가운데, 북쪽 영토에 얽힌 이야기도 서사 구조의 일반적인 틀을 지닌다. 그곳에서는 서사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면(시퀀스)이나 스키마의 대립 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 서사로서 성립하고 효과적으로 청중과 의미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구조에는 신화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쟁 체험 자체가 신화성을 지니고 북쪽 영토 문제라는 틀을 넘어 보편성을 가지고 청중에게 호소하는 서사 구조를 띠고 있다고 여겨진다.

## 4. 원도민의 ‘서사’ 구조

### 4.1 이야기의 ‘장면’(시퀀스)과 ‘스키마’에 대해서

서사 구조를 분석할 때는 이야기의 표면에 나타난 내용인 장면(시퀀스) 및 동시적으로 중첩되어 존재하는 스키마를 추출한다<sup>7)</sup>.

그리고 이야기회에서는 시간 제약이 있고 청중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화자는 그 이야기 속에서 시퀀스를 여러 번 반복하는 일은 거의 없다. 한편, 이 화자의 이야기가 시간과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 그것을 하나의 큰 서사로 묶으로써 그곳에서 반복되는 시퀀스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퀀스를 추출하는 단서로서, 이 이야기회에는 테마(내용)가 미리 설정되어 있다. 즉 ‘북쪽 영토의 조기 반환’을 테마로, ‘북쪽 영토의 전쟁 전 모습’, ‘소련군의 침공’, ‘강제 철수’, ‘반환 운동 활동 상황’, ‘북쪽 영토 반환을 위한 결의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화자에게는 요구된다<sup>8)</sup>.

하지만 실제 화자의 이야기를 분석하지 않는다면, 서사론에서 말하는 시퀀스는 추출할 수 없다. 원도민 저마다의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원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체험을 듣는 것이 타당할 테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이야기에서 화소를 분류함으로써 시퀀스를 추출하고, 시퀀스에서 스키마를 추정했다.

원도민의 이야기에서 추출한 시퀀스는 다음과 같다.

개척 시의 고생담, 전쟁 전(점령 전) 모습, 전쟁 동안의 모습, 종전 시의 모습, 소련 침공 시, 연행되는 일본군, 소련군 점령하에서의 생활, 섬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이주해 오는 러시아인, 러시아인과의 공생, 카라후토 철수선, 카라후토 수용 생활, 하코다테 철수선, 하코다테 철수 시, 철수 후 생활

다음으로 상기 시퀀스에서 스키마를 추정해, 주된 대립 관계를 추출했다.

「과거·회상」⇔「현실」, 「행복」⇔「고통」, 「생」⇔「사」, 「신뢰」⇔「의심」,  
「안도」⇔「불안」, 「절망」⇔「희망」, 「억압」⇔「해방」

예를 들어 「행복」 부분에 대해서는 북쪽 영토를 피와 땀으로 개척한 선조의 고생담을 들을 수 있다.

봄에 5월이 되면 섬 높은 곳은 일대가 온통 푸른 초원으로 바뀌고, 6월에 들어서면 해당화, 원추리, 흑백합, 민들레, 붓꽃, 은방울꽃 같은 봄에 피는 들꽃이 일제히 꽃을 피웁니다. 이 무렵이면 다시마도 제철이라 어렸던 우리들도 같이 다시마를 말리느라 해변이 떠들썩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그리운 고향이 생생하게 눈에 어리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질리지 않는군요.(제20회 이야기회)<sup>9)</sup>

이 회상은 일본 열도 탄생 신화인 ‘나라 탄생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다고도 할 수 있으리라. 다음은 소련군의 침공으로 인해 죽음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생활이 시작된 이야기다.

러시아인한테 잡힐 바에야 죽는 게 낫다며 일가족 5명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고도 있었고, 그걸 보다 못한 촌장님이 러시아 측의 당시 소련군 군인이랑 여러 가지 일로 실랑이를 벌이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제20회 이야기회)<sup>10)</sup>

원도민의 이야기는 이 시퀀스의 전개와 스키마가 ‘이차원, 즉 동시에 통시적이고 공시적’<sup>11)</sup>이며, 신화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들 이항대립이 이야기의 소구 구조<sup>12)</sup>를 이루어, 화자와 청중 사이에서 의미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신화성이나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엘리아데의 견해를 빌리자면<sup>13)</sup> 원도민이 경험한 역사적 비극은 국가의 신화로 흡수되어 ‘역사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역사에 대해 긍정적인 원도민의 이야기가 역사에 대해 부정적인, 즉 어떠한 원리성을 요구하는 국가의 이야기로 흡수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스키마의 대립 구조 속에서 추출된 의심은 소련(러시아)에 대한 면도 있지만, 당시 일본 정부를 향한 의심이라는 면도 있기에 반드시 국가의 서사로 흡수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하는 측면이 있었다고도 지적할 수 있다.

## 6. 마치며

북쪽 영토 문제는 ‘얼굴이 보이는’ 영토 문제다. 즉 북쪽 네 섬에는 러시아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시작된 북쪽 4도 교류, 소위 비자 없는 교류로 상호 교류도 이루어지며 서로 간의 신뢰 관계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현실에서 이 이야기회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현재 원도민은 북쪽 네 섬으로 도향할 수 있다. 그것은 비자 없는 교류라는 틀을 사용한 도향이지만, 네 섬에 거주하는 러시아인과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이 이야기회에서는 것처럼 네 섬에 거주하는 러시아인과의 교류를 통한 신뢰 관계 형성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즉 ‘얼굴이 보이는’ 영토 문제이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영토 문제상이 화자의 이야기를 통해 창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원도민의 전쟁 체험이 영토 반환에 흡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영토 문제라는 보편적인 테마에 대해 조금이라도 학술적으로 공헌하기를 바라며, 한일 차세대 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 · 인용 문헌

- 1) 北方領土問題對策協會「北方領土問題って何？」  
<https://www.hoppou.go.jp/problem-info/know/whatis.html> 2021年7月15日閲覧
- 2) 中村尙弘 (2000) 「元島民・子孫による北方領土返還運動の形骸化」『人文地理』第52巻第5号, pp.90-106
- 3) 黒岩幸子 (2007) 「國論としての『北方領土返還』形成プロセス」『総合政策』第1巻, pp.53-69
- 4) 社団法人北方領土復歸期成同盟(1991)『第1回元島民の北方領土を語る會集録』、p.2
- 5) 同上
- 6) 同上
- 7) レヴィ=ストロース・クロード(1993)(西澤文昭譯)『アスディワル武勳詩』青土社、p43
- 8) 社団法人北方領土復歸期成同盟(2018)『第29回「元島民の北方領土を語る會」集録』、p2
- 9) 社団法人北方領土復歸期成同盟(2009)『第20回「元島民の北方領土を語る會」集録』、pp.14-15
- 10) 社団法人北方領土復歸期成同盟(2009)、前掲書、p6
- 11) レヴィ=ストロース・クロード(1972) (荒川磯男ほか共譯)『構造人類學』、p.234
- 12) 高田明典 (2010)『物語構造分析の理論と技法』大學教育出版
- 13) ミルチャ・エリアーデ(1963)(堀一郎譯)『永遠回歸の神話』未來社

(번역책임자:천감재)